

나를 버려야 불심을 품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된다

진짜 종교와 진짜 학문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 학문이 없었다는 말을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마귀의 학문을 학문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마귀의 종교를 종교로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 구현이 종교요, 이 제그대로 불변의 영생체가 하나님이고로 하나님의 학문이 진짜 학문이요 하나님의 종교가 진짜 종교인 것이올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서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 알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할까? 몰라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비행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행기가 왜 하늘을 나는지 이상하게 생각이 될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될까?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비행기라는 건 날개짜지를 만들어가지고 부력을 이용해서 달리면 그 부력에 의해서 난다는 그 학설을 모르면 비행기가 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이 평평하게 생겼는데 이제그대로 지구가 둥글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당시에 권세 잡은 무식한 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던 것이올시다. 무식한 게 악한 거야, 알고 있는 게 악한 거야? 무식한 게 악한 거죠? 아시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고로 신이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나 불경 속에 사람이 하나님이었었으며 사람이

신이였었다는 말씀이 기록된 걸 모르는 고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불경에는 이 세상 만물이 부처님이요, 이 세상 만물이 다신이 라는 것을 논했던 거죠? 성경에도 이제그대로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소리죠? 한 군데만 쓰여 있어, 여러 군데 쓰여 있어? 여러 군데 쓰여 있었?

그러고로 아담과 해와의 후손이 모든 인간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오늘날 아담과 해와의 후손인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14장 1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제그대로 하나님 즉 신의 자식이라는 소리죠? 신의 자식이 신이야, 동물이야? 신이죠? 그래서 사람이 신이야. 아시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곧 신이다.”는 말씀이 쓰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 있어요?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신이요 신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야. 신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식한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불경이나 성경 속에는 사람이 신이라는 말씀이 기록돼 있는 것이올시다.



구세주 조희성님

“너희들은 불심을 품어라.” 불심이 신의 마음이야, 동물의 마음이야? 신의 마음이요? 신이 아닌데 신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성경이나 불경에 똑같이 기록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제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요 신의 자식이고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그대로 세밀하게 기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기록이 돼 있었?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신이 되는 인간이 마귀 신에게 포로가 된 고로 마귀 신의 종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 고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너희는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는 마귀 종이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마귀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서 하나님이 되여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성경과 불경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 속에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멍텅구리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 현재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이요, 마귀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은 나라는 의식이 마귀다, 하는 소리죠?

그러고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라는 걸

알고 있는 종교가 있어?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아시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라는 소리죠? 욕심 자체가 욕심 부려요,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려요? 나라는 의식=욕심이요? 욕심=죄죠? 그러니까 욕심=나라는 의식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죄죠? 성경과 불경에는 또렷하게 쓰여 있어요. 욕심이 죄라는 말은 나라는 의식이 죄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팔만대장경에는 인과법칙이 기록돼 있는데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다는 말씀인 고로 열매가 죄라면 원인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가 마귀 종이라고 쓰여 있죠? 마귀종이 마귀새끼요? 마귀새끼가 마귀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뭐예요? 마귀야. 그래서 성경이나 불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어, 한 번만 버려라고 했어요?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나를 버려야 동통하는 거야. 나를 버려야만 이제그대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고 부처님이 되었다가 되고 이제그대로 불심을 품었다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거죠?

피가 썩어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그러고로 나를 버려야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버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말로 멍텅구리야? 나라는 것이 마귀인 줄 알았으면 나를 버리기 위한 투쟁, 나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 나라는 의식의 마음을 제거하는 노

력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아까지 말고 노력을 해야죠? 나라는 주체의식이 있으면 화가 자주 나고 욕심이 자주 나오고, 시기 질투가 자주 나오고, 정욕이 자주 나오고, 그래, 안 그래?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고로 마귀의 마음이 저절로 나와, 억지로 나와? 저절로 마귀 마음이 나오죠? 마귀 마음이 나올 때마다 피가 썩는 거야. 아시겠어요? 피가 썩어서 늙고 죽을병 걸리고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하죠?

그러고로 근심, 걱정을 하면 얼굴에 시커멓게 기미가 낀다. 이것은 근심, 걱정만 하면 피가 썩고 그 썩은 피가 모세 혈관에 축적된 현상이 기미가 끼는 현상이다. 그러고로 근심, 걱정이라는 마음은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되게끔 욕심 부리는 마음이라고 이 사람이 설명을 세밀하게 설명을 해 줘, 안 해 줘?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땐 아주 쉽게 들려요. 사실 알고 보면 쉬운데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아시겠어요? 지식의 근본을 모르면서 뭘 안다고 박사라고 으스스대고 그러는데 모르는 것은 풍박사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린단든지 화를 낸단든지 시기, 질투를 한단든지 사람을 미워한단든지 하면 피가 썩어가지고 이제그대로 모든 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쭈글쭈글 늙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지고 점점 기운이 쇠퇴하면서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사람이 죽는 거죠? 이런 말씀 여러분들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 이진.*

1992년 11월 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4장 요셉》

(7) 고센 땅에 거하는 애굽인을 이주시키다

(7) 고센 땅에 거하는 애굽인을 이주시키다

요셉은 임금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라암셋(Raamses)이라고 하는 가장 살기 좋은 고장에 모셨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대어주었습니다.

가뭄은 더욱더 심해 갔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굶주림 속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이 없다고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참고에 그득한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 곡식 값은 모두 애굽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에게는 돈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마저 떨어져 곡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대로 당신 앞에서 쓰러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호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곡식과 바꿔드리겠소.”

사람들은 이번에는 말, 양, 나귀 같은 것을 끌고 와서는 곡식과 바꿔 갔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은 가축마저 다 없어졌습니다. 백성들

은 또 몰려와서 호소했습니다.

“이젠 돈이고 가축이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우리 몸과 밭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이젠 할 수 없이 당신의 눈앞에서 밭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제발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의 몸과 밭을 사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고, 밭은 묵은 밭으로 그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요셉은 애굽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왕의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고센 땅에서 사는 토박이 애굽인들은 가나안에서 온 총리 요셉의 친족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부러워했지만, 차츰차츰 시기하는 마음으로 돌변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이 자국민보다 천한 목축업을 하는 이국 사람들을 더 위한다.”라는 말들이 떠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단은 이러한 말들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시기하는 민심을 잠재울 만한 방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책을 주셨습니다.

“단아, 속히 요셉에게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일러라. 7년 흉년을 대비하여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애굽 성읍의 창고마다

쌓아두었나니, 애굽 동쪽에 사는 백성들을 서쪽 성읍에 와서 거하게 하고 애굽 서쪽에 사는 백성들을 동쪽 성읍에 거하게 하라. 애굽의 동북쪽 고센에 사는 애굽인들은 서쪽 성읍이나 남쪽 성읍에 거하도록 하라. 고센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게 될 것이니라.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밭을 사서 바로에게 바치되, 제사장들의 밭은 사지 말고 값없이 그들에게 양식을 줄 때에는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의 이름을 내세우라. 보디베라는 온의 제사장이니라.”

야곱의 아들 단은 동생 요셉을 만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책을 전했습니다. 총리대신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애굽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습니다. 성읍창고마다 지난 7년 풍년 동안 거둬들인 곡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총리 요셉의 이주정책을 환영하고 따랐습니다.

1 애굽의 이주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는 분명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요셉 사후에 희소족의 애굽 식민지 지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전 전략이 마귀한테 노출되면 안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굽생활 400년 가운데 전반기 약 200년(BC 1876~1674년) 동안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였다. 애굽의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였다. 이스라엘의 유다지파는 고센의 아바리스 성읍을 기점으로 삼고 번성하는 가운데 가나안의 에돔족과 교역하였다.

총리대신 요셉은 이집트 12왕조 아메넴헷 3세 때 기원전 1805년에 110세의 나이로 임종했다. 요셉 사후 이집트 12왕조의 절대왕권은 급속히 약화되어 아메넴헷 3세를 계승한 아메넴헷 4세(BC 1797 ~ 1790년)의 재위 기간이 7년밖에 되지 못하였고 그 뒤를 이은 소백년페루 여왕(BC 1790 ~ 1785년)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채 안되어 12왕조는 망하였다. 이후 기원전 1785년에서 기원전 1674년까지 110년 동안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두 번이나 교체되었는데, 첫 번째로 13왕조에서는 왕이 30명이었으며 두 번째로 14왕조에서는 왕이 70명 이상이었다.

가나안에서 고센을 통과한 상인들 즉 희소스인들이 눈 화장품을 팔기 위해 애굽의 펨피스 도성 또는 테베 도성을 왕래하였다. 그들은 애굽 왕조의 무질서와 치안 부재로 안전한 상거래를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무장한 전차를 앞세워 애굽을 치면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점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하나의 걸림돌은 고센에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애굽정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애굽의 고센에 정착한 지 2백년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하였다.

요셉은 자신의 정책이 호응을 얻게 되자, 라암셋 부근의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애굽인들을 서쪽 멀리 있는 성읍이나 남쪽 멀리 있는 성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라암셋에 살고 있는 요셉의 친족들이 더 많은 고센 땅을 차지하고 목축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
요셉은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애굽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니라

그리고 요셉은 온의 제사장이자 자신의 장인어른 보디베라를 높이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희소스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가운데 아바리스 성읍에 거주하는 유다지파와 동맹을 맺고 합세하여 애굽의 14왕조를 무너뜨렸다. 그리하여 에돔왕국의 희소스인들과 이스라엘 유다지파의 사람들이 애굽의 수도를 아바리스로 정하고 애굽을 약 100년(BC 1674~1575년)간 통치하였는데, 바로 이집트 15왕조와 이집트 16왕조에 해당된다. 이집트 15왕조의 초대왕은 에돔왕국에 속한 희소스인 셰시(Sheshi)가 되었으며 그 다음 제2대왕은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인 야쿠헤르(Yakubher)가 되었다.



고센 땅에 거하는 애굽인을 이주시킴(창46:21)

해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었기에 그들의 땅을 팔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친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장인 보디베라의 이름을 내세워 많은 제사장들이 내놓은 땅을 돌려주고 그들에게 값없이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왕의 신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신임을 받아 자신의 총리직을 굳건히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젤라